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7**  
DEC 25 2019

발간년월 2019년 12월 25일 (통권 제117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첫 플렉시 열차(Flexi-train), 중국으로 출발
- 일반 경상용 차량(트럭), 야쿠티아의 레나강 교량 무료 통행
- 조지아, 수출 시장 다변화 및 FTA 체결의 성과...수출 증가율 10% 달성 및 수입 감소율 보여
- 러 재무부, 2020년부터 수입품에 대한 면세 기준 가격 인하
- 러시아, 금융 시장 활성화 예고
- 이르쿠츠크주-한국 교역량 9개월간 3억 9,000만 달러 도달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4차 산업 활성화 전략 본격 착수

## 이슈 페이퍼

- 남북러 협력현황 및 유망사업 모델(3)

## 주요 통계

- 2019년 10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9월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9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 주요 동향



### 첫 플렉시 열차(Flexi-train), 중국으로 출발

#### ■ 노보시비르스크주에서 최초로 고속 플렉시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걸쳐 중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예정임

- 플렉시 탱크(Flexi-bank 혹은 Flexi-bag) 운송기술을 통해 컨테이너에 벌크화물을 적재하여 화물을 운송한 기업은 '에브로팍'사로 플렉시 탱크를 실은 컨테이너 약 74개를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보냄
- 약 21.5톤의 일회용 용기의 플렉시 탱크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있음

그림 1. 플렉시 탱크



- 이에 따라 화물이 도착한 후 용기를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어짐
- 또한 플렉시 탱크 기술은 액체 벌크화물 운송에 필요한 탱크용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운송비가 절감됨



- 노보시비르스크주에서 출발한 액체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환적되어 중국으로 운송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액체 벌크 화물을 철송 할 계획임

■ 노보시비르스크주의 곡물 및 식물성 기름의 경우 중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벨라루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됨

김은미 현지 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일반 경상용 차량(트럭), 야쿠티아의 레나강 교량 무료 통행

## ■ 2025년 말까지 관련 시설 건설 계획

- 야쿠티아의 레나강 교량을 이용하는 화물 차량의 통행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최대 2,018 루블에 이르며, 이 요금제는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함
- 첫 번째 요금 범주에 속하는 트럭은 944루블, 세 번째 범주는 1,255루블, 네 번째 범주는 2,018루블. 단, 3톤까지의 화물은 무료로 운송이 가능함
- 교량 건설에는 543억 루블 규모의 보조금이 배당되어 있고, 이 중 75%(479억 루블)는 연방 기금, 나머지는 지역 예산으로 충당됨. 교량은 민관 협력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보조금 외에 민간 자본도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펀드 자금과 투자 자금이 총 291억 루블에 달함
- 야쿠티아에서 레나강을 지나는 교량 건설은 극동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이 프로그램은 야쿠티아에 몇 개의 연방 운송 루트: 철도, 수운 그리고 항공, 또한 연방 고속도로 <빌류이>, <레나>, <콜리마>등을 연결하는 물류망 건설임
- 교량 길이는 약 3.12km, 진입로는 10.9km이며, 하루 5,800대의 차량이 다니는 2차선 고속도로가 포함됨
- 인프라 프로젝트의 구현으로 이 지역의 화물 운송량이 지금의 약 3배, 연간 최대 6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고, '북부 지역의 운송' 비용이 매년 41억 루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야쿠티아에서 가까운 '스타라야 타바가(Staraya Tabaga, Старая Табара)' 지역에 교량 건설

- 야쿠티아에서 지역의 가장 큰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레나강의 교량은 강의 폭이 가장 좁은 곳에 건설될 것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함
- 야쿠츠크시의 일부인 스타라야 타바가 지역에 교량 건설 예정. 이 지역의 레나강 바닥의 너비는 2.5km에 불과함
- 러시아 영구동토층 연구소 시베리아 지부(CO PAH)의 니키타 타나나예바에 따르면 이 지역은 자연 및 경제적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최적의 장소임
- 레나 강은 여러 방향으로 수로가 흐르지만, 이 구간은 단일 방향으로 큰 범람원을 막을 수 있으며 홍수의 위험을 없애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함



- 교량 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교량 설계는 2021년에 완료, 2025년에 건설 완료될 예정임

남가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neba95@naver.com)

---

####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na\\_most\\_cherez\\_lenu\\_v\\_yakutii\\_besplatno\\_pustyat\\_tolko\\_malotonnazhniki.html](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na_most_cherez_lenu_v_yakutii_besplatno_pustyat_tolko_malotonnazhniki.html)(검색일: 2019.12.9.)
- b)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gde\\_uzko\\_tam\\_i\\_postroyat\\_most\\_cherez\\_reku\\_lena.html](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gde_uzko_tam_i_postroyat_most_cherez_reku_lena.html)(검색일: 2019.12.9.)



# 조지아, 수출 시장 다변화 및 FTA 체결의 성과...수출 증가율 10% 달성 및 수입 감소율 보여

## ■ 조지아의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반면 수입량은 하락세를 보였음

- 조지아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Georg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교역량은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1.4%가 증가한 115억 달러(한화 약 13조 4,205억 원)를 기록했다.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1.5%가 상승한 34억 달러(한화 약 3조 9,700억 원)를 기록했고, 반면 수입규모는 2.3%가 하락한 81억 달러(한화 약 9조 4,550억 원)를 기록했다
- 전반적으로 조지아의 무역거래는 적자였지만, 2019년은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 해라고 할 수 있겠음. 이는 최근 조지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EU, 터키, 중국, 홍콩과의 FTA 체결 결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고무된 조지아 정부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터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외에도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일본, 미국, 인도와의 FTA 협정 또한 계획하고 있음

표 1. 조지아 2019년 1월 ~ 11월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증감율
수출	3,381.4	11.7
수입	8,112.6	-2.3
총계	11504.1	1.4

## ■ 또한 조지아는 구소련 국가들 중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구암(GUAM)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12월 13일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조지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Kyiv)를 방문, 조지아(G), 우크라이나(U), 아제르바이잔(A), 몰도바(M) 4국의 협력기구인 GUAM 총리급 회의에 참석했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올렉시 혼차루크(Oleksiy



Honcharuk) 총리,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알리 아사도프(Əli Əsədov) 총리가, 몰도바 측에서는 이온 키쿠(Ion Chicu) 총리가 각각 참석했음

- 4개국 총리들은 회의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 4개국 사업의 진행과 향후 자유무역과 관광업 발전의 전망, 그리고 교통 및 에너지 회랑의 개발을 담은 포괄적인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가하리아 총리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4개국은 선언문에 포함된 계획들과 함께, 4개국 사이의 자유경제지대 조성을 통한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4개국 세관기관에 의한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정 방안, 무역 거래 활동에서 상품 원산지 확인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음. 한편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상품에 부착된 QR코드 스캔만으로도 원산지를 기록한 인증서를 확인 할 수 있게 됨
- 한편 4개국 총리는 회담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음

그림 2. GUAM 4개국 총리급 회의(우크라이나 키예프)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참고자료

- <https://sputnik-georgia.ru/economy/20191214/247260881/Gruziya-uspeshno-torguet-eksport-vyros-na-114.html> (2019.12.17.검색)
- <https://sputnik-georgia.ru/politics/20191213/247254136/Gruziya-i-drugie-chleny-GUAM-dogovorilis-ob-uproschenii-torgovli.html> (2019.12.17.검색)



## 러 재무부, 2020년부터 수입품에 대한 면세 기준 가격 인하

### ■ 메드베데프 총리, 러시아 재무부의 면세 기준 가격 인하 지지

- TASS,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재무부에서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면세 가격 인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
- 현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관세 없이 €500의 소포 1개를 받을 수 있음
- 1월 1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면세 기준 가격은 소포 당 €200으로 감소 될 예정이며, 재무부는 2020년에 €100, 2021년에 €50, 2022년에 €20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임
- 지난 7월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2020년 이후 관세 증가는 €200를 초과하는 물품에 해당됨

## 러시아, 금융 시장 활성화 예고

### ■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고객 간의 송금 수수료 폐지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됨

- 현재 러시아 다른 지역 간 송금 수수료는 송금 금액의 1~2%로, 은행 간 차이가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에서 돈의 자유로운 이동과 비현금 지불의 발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르쿠츠크주-한국 교역량 9개월간 3억 9,000만 달러 도달

### ■ 2019년 1월~9월 이르쿠츠크주와 한국의 교역량이 2018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 3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이르쿠츠크 주 정부 공보실이 밝혔음

- 블라디미르 도로페예프 제1부지사는 “2018년 이르쿠츠크 대외교역량은 총 100억 달러였으며 이 중 한국과의 교역량은 3억2000만 달러였다”고 말함
- 이어 “올해 1~9월 한국과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3억90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 이르쿠츠크주는 한국에 석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셀룰로스, 목재가공품을 수출하고 있으



며 한국에서 화학제품, 기계, 장비, 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이르쿠츠크주에 혈당 측정을 위한 테스트 스트립 및 혈당 측정기 제조  
한러 합작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음

- 또한 현재 한국 기업인 Apollo Co Ltd사는 밸브 조립 생산 및 서비스 센터, 석유 및 가스  
산업 장비 생산 공장 건설 문제를 검토 중임

전명수 현지 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참고자료

- a) [https://russian.rt.com/business/news/696573-medvedev-besposhlinniyi-vvoz?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https://russian.rt.com/business/news/696573-medvedev-besposhlinniyi-vvoz?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2019.12.16. 검색)
- b) [https://russian.rt.com/business/news/696088-gosduma-zakon-bankovskii-rouming?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https://russian.rt.com/business/news/696088-gosduma-zakon-bankovskii-rouming?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019.12.16. 검색)
- c) <https://tass.ru/sibir-news/7340149> (2019.12.16. 검색)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4차 산업 활성화 전략 본격 착수

### ■ 2019년 현재 독립 3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에 대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 중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지리적 이점과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독립 이후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 왔음
-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들은 나라마다 상이한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더 이상 폐쇄적이고 단일한 방식의 성장 동력 산업만 고집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기존 경제성장 기반이었던 자원 수출을 탈피하여 운수, 행정, 금융, 관광 등의 분야를 IT 기술과 접목하여 이른바 신산업 분야가 부상하고 있음
- 아울러 21세기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생태학적 기술 접목 방식과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산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임
-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 4차 산업 활성화 동향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정보 강국 중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임

### ■ 카자흐스탄의 ICT 산업 동향과 스마트 시티 개발 사례

- 국제통신연합(ITU) 회원국 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부문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인 IDI(Information Development Index) 기준, 카자흐스탄은 6.79점을 획득함
- IDI 지수 기준 카자흐스탄은 전체 176개국 중 52위를 차지하며, 이는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청년층들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며, 특히 SNS 문화의 확장으로 정보통신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업과 엔터테인먼트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의 경우 아스타나 허브(Astana Hub)를 개관, 지난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 행사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스타트업 기업 입주나 ICT 부문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간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 2019년 하반기, 아스타나 허브로 인해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청년층 그리고



신산업분야의 사업가들이 정보를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경제거점도시 알마티의 경우, 시 외곽에 IT 파크로 불리는 정보통신 산업 단지 건설에 착수함
- 특히 알마티 시장 바크트잔 사근타예프(Bakytzhan Sagyntayev)는 최근 무역 부문에만 편중된 알마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외 선진 기술의 공유와 4차 산업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목표를 둔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하며,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해 특별시로 승격한 쉴켄트(Shymkent)시는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과의 물류 운송에 있어 주요 노선이었음
- 쉴켄트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다른 도시들과 달리 우즈베크인들의 민족 분포가 많은 양상을 보임
- 아울러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 수도 누르술탄의 위치가 북부로 치우쳐져 있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특이점으로 인해 전 나자르바예프(Nazarbaev) 정부에서는 쉴켄트시 개발에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오늘날 현지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도시임
- 남부지역 개발의 중요성은 현 토크예프(Tokayev)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4차 산업 부문 육성에도 힘쓸 전망이다
- 이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쉴켄트 북부 지역 약 427ha에 해당하는 면적에 복합문화 시설, 공연장, 교육 시설, 의료 시설, 생태공원, 첨단 주거단지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이른바 ‘쉴켄트 시티’라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착수함
- 해당 스마트 시티는 가스 공급 및 상수도 서비스 시스템, 교육기관의 정보화 시설 확충을 포함하는 ICT 기반 도시로, 관내 치안유지나 여가를 위해서도 정보통신 기술들이 활용될 전망이다
- 쉴켄트시 당국에 따르면, 향후 200만 인구수용을 위해 교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것이며, 입학 자동화 시스템이나 교원 평가 전산화 작업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적용될 전망인데, 환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건강 검진 기록과 차기 방문 일정 등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임
- 한편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마찬가지로 첨단기술이 도입 될 것이며, 고성능 CCTV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짐



-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들은 기존 에너지 자원에 편중되어 있었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 스마트 시티로서의 쉴켄트를 표현한 이미지



##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 전략과 4차 산업 전망

- 지난 2016년 출범한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정권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개방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017~2021 국가발전 전략’을 공표하였는데, 이 전략의 요는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경제 다변화 정책과 자유화,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 등이 포함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향은 경제특구 설치와 이를 통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임
- 2008년 최초의 경제특구 지정 후 현재까지 20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시설들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융합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가능해짐
- 우즈베키스탄의 IDI 지수는 2016년에 4.05점으로 세계 110위를 차지했고, 2017년 95위를



차지하여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이동통신 및 광대역통신(Broadband)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표된 ‘2013-2020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힘입어 당국은 정보통신 기반 시설 투자와 전자 정부 구축에도 힘쓰고 있음
-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과 청년세대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ICT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내 활성화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수는 총 2,000여 개에 달하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도가 높음
- 페이미(Pay me)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30만 고객에게 고품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우즈베키스탄 내 선도적인 지불 서비스로, 새로운 결제 유틸리티와 P2P 송금, QR 코드기반 지불, 공과금 납부 기능 등 다양한 전자 상거래가 가용함
- 특히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 음식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되고 있어 추후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보건환경 개선 정책에서도 ICT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제약 부문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약 부문은 많은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의약품 시장의 기술적 수준이 높은 한국이 진출하기에도 좋은 영역임
- 이와 관련하여 올해 문재인 대통령 순방 당시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연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의 ICT 의료 기술을 통해 양국 협진 가능성을 가시화 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음
- 이처럼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기존 농업과 자동차 산업, 섬유업, 제약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교류를 통해 성장을 목표하고 있음
- 아울러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의 직접적인 진출이나 원조사업을 통해 호혜적 외교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우즈베키스탄 2017-2021 국가발전 전략



## ■ 중앙아시아 지역 4차 산업 발전과 한국

-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에 이어 이낙연 총리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방문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자원 외교에 편중되거나, 면화 산업 정도에 그쳤던 발전 사안들이 한국 측 과학기술정보통신과 ICT 산업에 대한 협력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와는 의료부문의 협력을 체결하였음
- 타지키스탄의 경우 희토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부문 협정과 보건 의료 분야, IT 기술 보급 확대의 활성화에 지원하기로 하였음
-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올해 7월, 한국과의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키르기스스탄이 오는 2020년 한 해 민관합작투자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경험 많은 한국의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전함
-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도 청년층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4차 산업 분야를 다루는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수도 비슈케크에는 최신 설비와 정보통신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공유 오피스나 청년 스터디 활동 공간, 청년 모임 사업 등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공유 공간에서 청년들은 창업 커뮤니티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직활동을 이어나가



고 있음

-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현재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4차 산업이 활성화 되는 과정을 경험 중이며, 이에 따라 융합산업 발전과 산업 다각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중임
- 한국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교역 규모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지하자원 외교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즉 ICT 기술과 함께 보건, 의료, 관광, 생태환경 등 4차 신산업 분야의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이며, 이러한 산업들을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들을 위한 지원과 연구가 이어져나가야 할 것임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www.fvv.uz/uz/> (2019.12.15. 검색)
- b) <https://mfa.uz/uz/> (2019.12.15. 검색)
- c) <http://openspk.kz/> (2019.12.16. 검색)
- d) <https://strategy2050.kz/> (2019.12.16. 검색)
- e) <http://donors.kg/> (2019.12.17. 검색)
- f) <http://kabar.kg/> (2019.12.17. 검색)





## 이슈페이퍼



### 남북러 협력현황 및 유망사업 모델(3)

#### 6) 한러 교역

##### ■ 한러 양국 간 정치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러 교역량은 240억 달러, 한국의 대러 투자액은 26억 달러로 수교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리 많지 않은 편임

- 그간 한러 경제협력은 큰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정세, 법적 기반과 제도 미비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능성들을 실행하고 발전시키지 못했음
-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주목해 신북방정책을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로 삼았음. 한러 간 교역,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중점 전략을 제시함
- 첫 번째, 철도와 항만을 활용한 물류, 운송 프로젝트 실행에 큰 가능성이 있음. 연해주의 항만은 입지가 우수하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기착점임. 한국 기업의 TSR 컨테이너 블록 트레인 시범사업이 이미 성공적으로 실행됐고, 극동에 복합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협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두 번째, 농수산업 분야에 협력 잠재력이 있음. 현재 7개 한국 기업이 연해주의 여러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임.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어업 분야는 동해안의 풍부한 어장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은 상호 간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됨
- 세 번째,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북러 접경지역의 농업, 어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의 다양한 협력사업 실행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해 한국 측은 러시아와 북한 측에 남북러 3국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했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는 상태임

#### 7) 한계점

##### ■ 한국 사업계는 아직 러시아 프로젝트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 1990년대 한국은 극동 지역, 특히 연해주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독립



적인 시도를 했으나, 늘 성공하진 못했음

- 따라서 한국 사업계는 극동 지역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중부 지역들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도 중대한 제한이 되고 있음

■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9개의 다리’를 제안함.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인센티브조차 한국 기업을 광범위하게 극동 투자에 끌어들이는 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20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 있음
- 국내와 해외 프로젝트 실행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연결돼 가동하던 시기는 끝난 것으로 판단됨
- 좀 더 개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후원과 보호 아래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외시장 진출 결정을 내리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확실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함**

-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임
-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란 확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제안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맞먹을 만한 높은 수준의 정부 보장, 다른 활동 분야에서의 특혜임

## 8) 선행과제

■ **양국 관계의 역동성을 높일 방법은 협력의 기술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중견기업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며, 양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금융제도 등을 만드는 것임**

-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은행의 중개 서비스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좀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임
- 한러 협력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인 FTA 체결 측면에서도 필수



적임

- 또한,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함. 서비스 교역은 많이 개발되지 않았고, 문화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여지도 예전처럼 많이 남아 있지 않음

■ **올해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은 상기 문제들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표단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작업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음**

- 한편으로 한국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양국 협력 의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둔 현재, 양국 협력 의제는 계속해서 발굴 및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임.

9) [사례] 남북러 협력사업

■ **남북러 합작 공단지구**

- 북러 접경지역인 나진 하산 부근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러 삼각 합작 산업 공단 건설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사업성은 물론 남북 경제통일 조기 실현의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됨
- 다자간 경협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및 대외개방 유도, 주변국 경제이익 창출을 넘어 궁극적으로 남북, 중러일 등 동북아 경제권 국가 간 상생 사업모델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남북중일러 5개국이 자유무역 지역의 국제경제 특구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지로 적합한 이유는 나진하산 접경지역은 우리의 환동해권 지역인 강원도, 경북, 경남 등이 자루비노항(하산군 소재)을 경유해 중국 동북3성까지의 새로운 물류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확보하려고 했던 지역이었음
- 따라서 이 부근에 합작 공단을 건설하면 환동해권 - 자루비노항 - 합작공단 - 중국동북 3성 간의 복합물류네트워크(해상+ 육상)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임
- 합작의 당위성을 보면, 남북러 각자의 강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가운데 특히 극동 러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고, 한국은 외교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관계증진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발굴이 요구됨

- 한국도 개선공단 폐쇄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바, 앞으로 북한 변수로 인해 사업장 존립 자체에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작 공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술유출 우려를 줄이고, 서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임
- 한국의 사업기획 및 설계, 운영 노하우와 북측의 인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전력, 가스 등)을 결합한 사업모델 창출이 바람직하며, 3국 모두 명확한 의무와 역할을 가지고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함
- 성공할 경우 모범적인 선례가 되어 추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신뢰와 자신감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전명수 현지 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en.wikipedia.org/wiki/Kim%E2%80%9393Putin\\_meetings](https://en.wikipedia.org/wiki/Kim%E2%80%9393Putin_meetings)(검색일: 2019.11.15)
- b)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370>(검색일: 2019.11.15)
- c) <https://copdoc.ru/news/3126.html>(검색일: 2019.11.15)
- d) <https://russian.rt.com/russia/news/624435-kim-chen-yn-rossiya-vizit>(검색일: 2019.11.15)
- e)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9/04/25/800182-putin-rasskazal>(검색일: 2019.11.15)
- f) <https://www.kommersant.ru/doc/3981626>(검색일: 2019.11.15)
- g) <https://ria.ru/20190905/1558356794.html>(검색일: 2019.11.15)
- h) <https://rg.ru/2019/10/02/posol-macegora-tovarooborot-rossii-s-kndr-ostaetsia-minimalnym.html>(검색일: 2019.11.15)
- i) <https://m.dw.com/ru/саммит-во-владивостоке-зачем-путин-встречается-с-ким-чен-ыном/a-48467114>(검색일: 2019.11.15)
- j) [http://studsport.ru/03.05.2019\\_rossijsko\\_koreyskaya\\_molodegnaya\\_vstrecha\\_rossiya\\_kndr\\_na\\_vstrechu\\_novomu\\_desyatiletiju](http://studsport.ru/03.05.2019_rossijsko_koreyskaya_molodegnaya_vstrecha_rossiya_kndr_na_vstrechu_novomu_desyatiletiju)(검색일: 2019.11.15)





## 주요 통계



표 1. 2019년 10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2.11 (+1.4%)	7.09 (+0.4%)	19.2	+1.0%
북극해	2.83 (-0.2%)	5.99 (-2.7%)	8.81	-1.9%
발트해	9.24 (-0.2%)	13.52 (+0.0%)	22.76	+4.6%
아조프-흑해	9.31 (+1.7%)	13.99 (+0.5%)	23.3	+1.1%
카스피해	0.28 (+4.5%)	0.37 (-0.3%)	0.64	-3.1%
합계	33.87 (+0.9%)	40.95 (-0.1%)	74.28	+0.4%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울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광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연료 및 에너지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생고무 및 화학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금속 및 금속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계류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타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228	298.5	8	157.3	228	298.5	8	157.3	-	-	-	-
냉동어	104,636	1,607,556.0	2,475	41,564.5	104,551	1,606,927.4	2,475	41,564.5	85	628.6	-	-
연어류	19,884	237,299.0	-	-	19,799	237,064.0	-	-	85	235.0	-	-
넙치	670	21,080.5	-	-	670	21,080.5	-	-	-	-	-	-
가자미	819	13,009.3	-	-	819	13,009.3	-	-	-	-	-	-
가자미류	2,233	28,040.5	-	-	2,233	28,040.5	-	-	-	-	-	-
청어	14,264	66,102.4	-	-	14,264	65,727.7	-	-	452	374.7	-	-
대구	3,157	149,451.2	-	-	3,157	149,451.2	-	-	-	-	-	-
명태	50,760	807,088.8	-	-	50,760	807,088.8	-	-	-	-	-	-
농어	42	1,587.4	-	-	42	1,587.4	-	-	-	-	-	-
간, 곤이 (어란)	1,582	207,262.7	-	-	1,582	207,262.7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23	12,147.8	-	-	623	12,147.8	-	-	-	-	-	-
생선필렛, 어육	3,893	150,096.7	55	2,458.6	3,893	150,096.7	55	2,458.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	1,212.4	84	4,559.9	10	1,212.4	84	4,559.9	-	-	-	-



갑각류	4,845	735,693. 2	0	0	4,845	735,693. 2	0	0	-	-	-	-
계류	4,015	665,876. 4	-	-	4,015	665,876. 4	-	-	-	-	-	-
조개류	4,664	57,210.4	-	-	4,664	57,210.4	-	-	-	-	-	-
가리비류	31	9,223.3	-	-	31	9,223.3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4,247	25,136.0	62	2,194.2	4,247	25,136.0	62	2,194.2	-	-	-	-
수산무척추동물	970	25,345.9	-	-	970	25,315.5	-	-	1	30.4	-	-
해삼류	486	6,190.1	-	-	486	6,159.7	-	-	1	30.4	-	-
성게류	294	18,698.1	-	-	294	18,698.1	-	-	-	-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9월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교통수단	2019년 1~9월	2018년 1~9월 ~2019년 1~9월
철도운송	5,132.4	5,240.6
자동차운송	966.4	957.6
해운	4,054.6	4,182.5
내륙수로운송	17.79	14.361
항공운송	92.7	85.31
파이프라인운송	0.857	0.8222

표 5. 2019년 1~9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교통수단	2019년 1~9월	2018년 1~9월 ~2019년 1~9월
자동차운송 (버스운송)	7,665.0	97.2
해운	9.361	86.5
내륙수로운송	4.81	77.4
항공운송:	99.142	111.2
국내운송	56.3	106.8
철도운송:	899.5	104.3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809.1	104.1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 a) 러시아 연방 항공청 자료
- b) 러시아 연방 해양 및 하천운송청 자료
- c) <https://www.mintrans.ru/ministry/results/180/documents>(검색일: 2019년 12월 21일)
- d) <http://portnews.ru/news/286810/>(검색일: 2019년 12월 21일)